



# 나무 식재와 관리요령





## 나무 심는 장소 선정

- 나무는 한번 심으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한 자리에서 자라게 됨
- 적절한 심는 장소의 선정은 나무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임

### 〈좋은 장소〉

- 햇볕이 잘 드는 남향,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는 충분한 토양 공간, 배수가 잘 되는 장소

### 〈나쁜 장소〉

-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장소(영구음지), 뿌리가 충분히 자라기 어려운 토양, 물빠짐이 나쁜 장소(물빠짐 대책 마련할 경우 식재 가능)



## 나무의 종류 선정

- 산림 수종과는 달리 도시 또는 주거지 내 식재 수종은 사람들의 건강, 안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나무의 종류 선정이 필요함

### 〈좋은 선정〉

-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주고 겨울에는 햇볕이 잘 드는 낙엽수, 가시가 없고 농약, 비료 등의 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나무, 지나치게 크게 자라거나 빠르게 자라지 않아 바람에 넘어지거나 건축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나무

### 〈나쁜 선정〉

- 겨울철 그늘을 만드는 나무, 농약, 비료 등과 같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나무, 가시나 유독성 열매가 있어 어린이에게 위험한 나무, 지나치게 크게 자라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건축물 훼손하는 나무



## 도시에 심기 좋은 나무 종류

### □ 교목, 아교목

- 칠엽수, 대왕참나무, 느티나무, 피나무, 회화나무, 꽃사과, 모감주, 복자기, 단풍나무 등





## 도시에 심기 좋은 나무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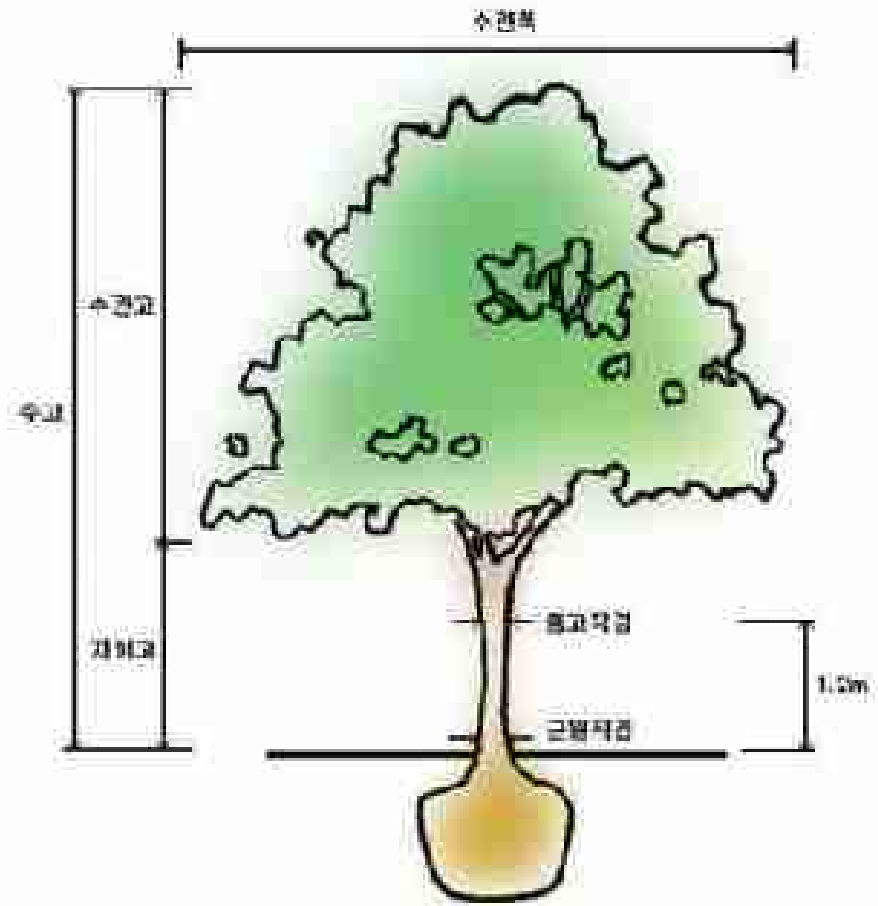
### □ 관목

- 개쉬땅나무, 황매화, 고향나무, 작살나무, 철쭉, 흰말채, 히어리, 박태기, 조팝나무 등





## 나무의 각 부위별 명칭





## 나무 심는 방법

### □ 나무 심는 시기

- 수목의 생장이 시작되기 직전(새잎이 나기 전)
- 수목의 생장이 정지된 이후(엄동기 제외)
- 최근 기후변화로 심는 시기가 당겨지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득이 제철이 아닌 경우 뿌리와 줄기비율을 맞추어 잎이나 가지를 솎아낸 후 심는 것이 필요함

### □ 식재요령

- 물고임이나 흙 내려앉음을 고려하여 약간 높여서 심음
- 표토(지표면 흙)은 가능한 심는 구덩이에 넣어 심음



## 심은 후 물주기과 비료주기

### □ 물주기

- 심고 난 후 나무가 제대로 자랄 때까지 주기적으로 물주기 필요
- 기온이 30도 이상의 햇볕이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물 줄 것
- 겨울에는 물주기 횟수를 줄이고 따뜻한 날에 함

### □ 기비(심을 때 주는 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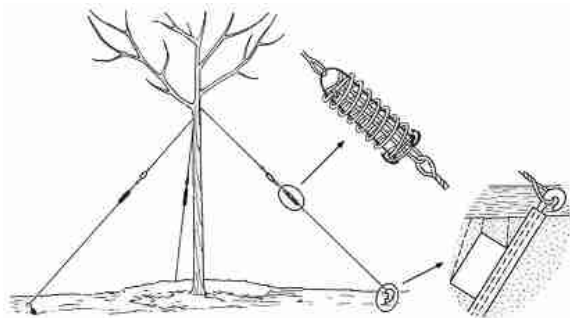
- 잘 썩은 퇴비를 채움 흙과 고루 섞어 구덩이 바닥에 깔고 나무를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퇴비를 잘 섞어서 넣음





## 지주목 세우기

- 키가 큰 나무는 심은 후 지주목을 설치하여 바람에 수목이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함
- 지주목의 종류
  - 이각지주 : 수고 2m 이상, 삼각지주: 수고 3m 이상 근원직경 6cm 이상~, 사각지주: 수고 5m 이상, 근원직경 25cm 이상, 흉고직경 20cm 이상,
  - 당김줄: 수목 주위의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 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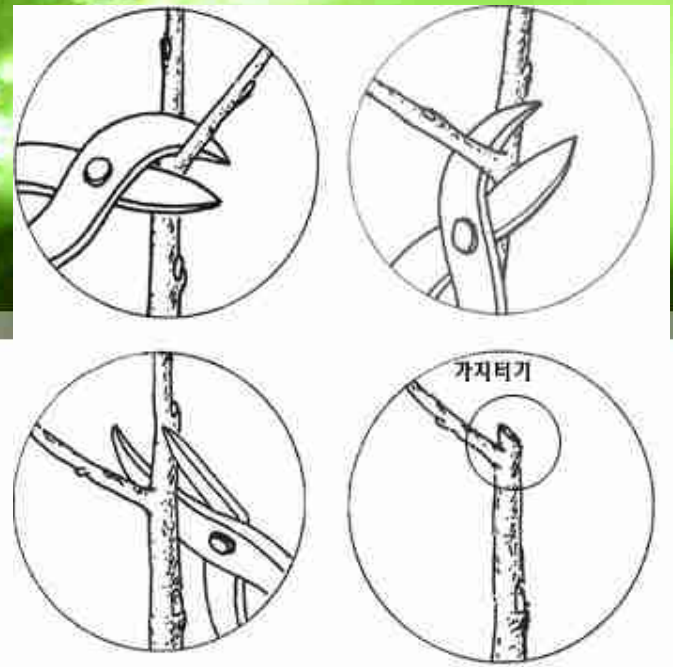




## 심은 나무 관리하기

### □ 물주기

- 물주는 시기 판단 : 잎이 축 늘어지고 시들기 시작할 때, 나무의 광택이 없어지거나 녹색이 연녹색으로 퇴화하기 시작할 때
- 물주기 방법 : 물매턱을 만들어 용덩이에 물주기, 스프링클러(나무와 잔디를 함께 균일하게 관수), 점적관수(나무 있는 곳만 관수)
- 물주는 시기와 빈도 : 일주일에 1번, 물을 충분히 주어 토양 40cm 깊이까지 젖도록 함, 점적관수는 2~3일에 한번씩, 봄에 건조가 심하며, 활착의 시기이므로 집중적으로 물주기를 해야 함, 11~16시 사이는 수피가 타거나 수목이 고사할 수 있으므로 물주기를 피해야 함



## 관리하기

### □ 가지치기

- 가지치기는 수목의 일부 중 주로 가지와 줄기를 제거하여 나무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함
- 미적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에 도움을 줌
- 가지치기는 어린나무가 성숙목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골격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각도를 잡아주며, 조경수가 위치에 따라 교통장애를 일으키거나 바람에 넘어져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
- 제거할 가지를 매끈하게 바짝 자르고 나무로 하여금 상처를 빨리 감싸서 치유하도록 유도. 가지치기는 가지터기(자르고 남는 부분)를 남겨놓거나 수피가 찢어지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함



## 관리하기

### □ 병충해 방제

- 적절한 병충해 방제는 나무의 생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 병충해의 원인은 나무가 쇠약해지는 주요 원인
-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병충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새끼 등을 이용한 줄기 싸주기,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뿌리 주위를 덮음



## 도시에서 나무 심고 가꾸기 십계명

1. 나무는 필요한 곳에 심어야 한다.
2. 나무는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심어야 한다.
3. 나무를 심은 후 가능한 옮겨 심지 않는다.
4. 나무는 가능한 작은 나무를 심어 가꾸되, 생장 속도를 고려하여 심는다.
5.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심는다.
6. 가시나 잎, 열매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나무를 심는다.
7. 나무는 바람과 산사태에 안전하도록 심는다.
8. 심은 나무는 잘 자라도록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한다.
9.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다듬어 주어야 한다.
10. 심은 나무는 제대로 자랄 때 까지 책임지고 가꾸어야 한다.